

# 인터뷰 질문에서 유도 표현 지우기

똑똑 · 에디터 새봄 · 발행 2026.09.30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개방형 질문도 너무 추상적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 쉬운 설명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불편했죠?”는 동의를 유도하지만 “어떤 점이 편하거나 불편했나요?”는 여러 답을 허용합니다.

## 핵심

-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 “불편했죠?”는 동의를 유도하지만 “어떤 점이 편하거나 불편했나요?”는 여러 답을 허용합니다.
- 개방형 질문도 너무 추상적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 질문 · 대상과 범위부터 읽기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원하는 답을 질문 속에 넣으면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지역 농산물이 더 맛있어서 좋죠?”에는 맛이 더 좋다는 가정과 동의를 요구하는 말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최근 급식의 맛을 어떻게 느꼈나요?”와 “원산지를 알고 있었나요?”로 나누면 서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념 구분 · 같아 보이는 말을 나누기

“불편했죠?”는 동의를 유도하지만 “어떤 점이 편하거나 불편했나요?”는 여러 답을 허용합니다. 질문 순서도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질문 뒤에 상대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바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메뉴가 있나요?”처럼 경험을 떠올리게 돕고, 없으면 모른다는 답도 기록합니다. 무응답과 부정적 의견은 다릅니다.

## 적용 사례 · 가상의 장면에서 판단하기

가상 학생이 급식 인터뷰에서 “지역 농산물이 더 맛있어서 좋죠?”라고 묻습니다. 맛과 원산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넣었습니다.

질문 순서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식재료의 장점을 길게 설명한 뒤 만족도를 물으면 응답자가 기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중립적인 정보와 조사 목적만 제공하고 평가 문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 비교표 · 이 글의 세 가지 판단 기준

| 확인 항목 | 본문에서 확인한 것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핵심 범위 |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 “불편했죠?”는 동의를 유도하지만 “어떤 점이 편하거나 불편했나요?”는 여러 답을 허용합니다. |
| 가상 사례 | 가상 학생이 급식 인터뷰에서 “지역 농산물이 더 맛있어서 좋죠?”라고 묻습니다.              | 개방형 질문도 너무 추상적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
| 후속 확인 | 질문에서 “당연히·문제죠·좋죠”를 찾고 중립 표현으로 바꾸며 후속 질문은 실제 답을 들은 뒤 고릅니다. | 인터뷰는 이유와 경험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

본문 설명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만든 표입니다. 기관 원문의 도표나 실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 실행 순서 · 직접 작성하는 활동 순서

- 준비: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 실행: 질문에서 “당연히·문제죠·좋죠”를 찾고 중립 표현으로 바꾸며 후속 질문은 실제 답을 들은 뒤 고릅니다.
- 검토: 개방형 질문도 너무 추상적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의 학습 절차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식입니다.

## 한 단계 더 · 조건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

인터뷰를 마치면 녹음·메모의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인용할 문장이 원래 맥락과 맞는지 다시 듣습니다. 다섯 명의 대답을 전체 학생의 비율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터뷰는 이유와 경험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개방형 질문도 너무 추상적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경험을 묻되 평가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깊이 읽기 ·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기

“언제 불편했나요?” 도 불편함이 있었다는 가정을 담습니다. 먼저 “이용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고 불편을 말했을 때 시간과 상황을 후속 질문으로 묻습니다.

질문은 응답자의 말에 맞춰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학생에게 비교 가능한 답을 얻으려면 기본 질문은 같은 순서로 준비하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중립적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답만 깊게 캐묻고 다른 답은 넘어가면 기록의 균형이 깨집니다.

## 직접 확인 · 원문과 사례에 적용하기

질문에서 “당연히·문제죠·좋죠”를 찾고 중립 표현으로 바꾸며 후속 질문은 실제 답을 들은 뒤 고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 할 때 운영 시간은 어땠나요? 이용하지 못한 때가 있었나요?” 처럼 경험과 양쪽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 직접 생각해 보기

“도서관 운영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불편하죠?”를 고쳐 보라.

---

---

---

---

---

## 확인 설명

“도서관을 이용하려 할 때 운영 시간은 어땠나요? 이용하지 못한 때가 있었나요?”처럼 경험과 양쪽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인터뷰 질문의 유도 표현을 어떻게 지을까요?

좋은 인터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여지를 남깁니다. 원하는 답을 질문 속에 넣으면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불편했죠?”는 동의를 유도하지만 “어떤 점이 편하거나 불편했나요?”는 여러 답을 허용합니다. 질문 순서도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불편하죠?”를 고쳐 보라.

“도서관을 이용하려 할 때 운영 시간은 어땠나요? 이용하지 못한 때가 있었나요?”처럼 경험과 양쪽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개방형 질문이면 언제나 중립적인가요?

개방형 질문도 너무 추상적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경험을 묻되 평가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당연히·문제조·좋조”를 찾고 중립 표현으로 바꾸며 후속 질문은 실제 답을 들은 뒤 고릅니다.

## 원문과 출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질문지 설계 — [https://stacks.cdc.gov/view/cdc/11674/cdc\\_11674\\_DS1.pdf](https://stacks.cdc.gov/view/cdc/11674/cdc_11674_DS1.pdf): 유도 질문과 중립적 질문의 비교 예시가 있는 설문 설계 지침입니다. 이 글은 그 원칙을 인터뷰 질문에 적용한 자체 예시입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인지 인터뷰 — <https://www.cdc.gov/nchs/ccqder/question-evaluation/cognitive-interviewing.html>: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형성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학생 인터뷰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remove-leading-interview-questions>